

D램값 하락 되레 반기는 삼성·SK... “초격차 확대 기회”

美 압력, 재고증가 등 반도체 약재 국내업체, 미세공정 투자 등 대처 내년 ‘슈퍼사이클’에 점유율 기대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 들어 꾸준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서버 업체들의 재고 증가에 미국의 화웨이 무역 제재 강화까지 약재가 설상가상으로 잇따랐다.

그럼에도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발 빠른 투자와 높은 기술력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한 덕분이다. 6월 업계에 따르면 디램익스체인지는 지난달 DDR4 8Gb PC용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평균 3.13 달러였다고 밝혔다.

2달 연속 보합세다. 지난 7월 전월 대비 5.44% 떨어진 이후 추가 하락은 없었다는 얘기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경제 성장이 가격 안정을 만들고 있다

는 분석이다.

반면, 서버용 D램 가격은 하락했다. 32GB 기준 고정 거래가격이 전달보다 5% 가까이 떨어진 122달러를 기록한 것.

서버 업체 D램 재고가 높아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미국 마이크론은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서버 업체 수요 감소로 재고일수가 오히려 135일로 전분기(131일) 대비 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웨이가 미국의 무역 제재에 앞서 대규모 D램 재고 확보로 가격 하락을 일부 방어해내긴 했지만, 9월 중순부터 구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때문에 4분기에는 D램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디램익스체인지는 3분기보다 10% 이상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 밖에 업

계 관계자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텔이 새로운 CPU 출시 주기를 늦춘 것도 부정적인 요소다. 지난 7월 7나노 공정 지연을 공식화하면서 서버 업체들도 재고확충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올해에도 발 빠르게 미세 공정 투자를 이어가면서 생산성을 높여 수익성을 극대화한 덕분이다. 내년부터는 또다시 ‘슈퍼 사이클’까지 기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반도체 산업에서 수익성 제고는 원가 절감을 핵심으로 한다. 거래 가격은 용량과 속도별로 비슷한 수준에 형성되는 만큼, 미세 공정 확대는 더 많이 생산·판매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미세 공정은 단계별로 20~30% 가량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졌었다. 웨이퍼 1장당 1x에서는 칩을 700개 안팎을 만들지만, 1z에서는 1000여개, 1a에서는 130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연말까지 3세대 10나노(1z) 공정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세대 10나노(1a) 양산도 올해 안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1z D램 비중을 연말까지 4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내년부터 1a D램 양산도 돌입한다는 목표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서는 누가 더 많이 판매하느냐가 중요하고 결국 기업별로 빛그로스가 중요하다”며 “2021년 삼성전자의 빛그로스가 시장 성장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고,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는 올 3분기부터 삼성전자의 독보적 행보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5G 품질·앱 수수료·단통법 폐지 등 도마위

과방위 국감 오늘부터 돌입

이동통신 3사 대표 증인으로 출석

7일부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문제부터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문제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중요 이슈들이 이번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감장 안과 대기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을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한다. 과방위는 오는 1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화상 국감을 실시한다.

◆‘5G 언제쯤 잘 터지나’...5G 품질·단

통법 등 관심

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과방위 통신 분야 이슈로는 5G품질과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개선안 등이 꼽힌다. 이동통신 3사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5G는 상용화 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품질 문제가 소비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올해 8월 말 5G 가입자는 865만8222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5G 전국망 구축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5G 가입자들은 5G 단말을 이용하고 있지만, 음영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끊기거나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전환

해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통법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비용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었고, 불법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실패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이동통신 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ICT 공룡 핵심 증인 불출석 논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들도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모든 앱·콘텐츠에 수수료를 30%로 확대키로 한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마련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상황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로 보인다.

애초 국회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참석이 불발돼 구글코리아에서는 한국 내에서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존리 사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존리 사장은 국감 때마다 ‘모르쇠’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이번 국감도 알맹이 빠진 국감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CP)에 망 품질 의무를 지도록 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또한 국감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김나인 기자 slkni@

한반도 평화수도

다시 만나는 **파주 DMZ**

평화관광

9월 25일 재개

평화가 시작되는 곳 DMZ 경계를 넘다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도라전망대